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석화·항공 '직격' 정유·방산 '반등'

석화업계, '공급 불가항력' 우려
항공업계, 우회 운항 등 비용 부담
정유업계, 재고 평가이익 개선 기대
방산업계, 중동 등 수주 증가 전망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급등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계에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차질 등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유가에 극히 민감한 석유화학과 항공업계는 연쇄 타격을 입게 됐고,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부담은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유와 방산업계는 실적반등의 기회를 맞을 수 있어 일부 업종별 온도차도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위기감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산업 분야는 석유화학과 항공 업종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유가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연쇄 '공급 불가항력(포스마주르)'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급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이나 자연재해처럼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



기 어려울 때 면책을 위한 조치이다. 실제 여천NCC는 지난 4일 주요 고객사에 제품 공급 일정의 지연 및 조정 가능성을 통보하고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국내 업체들은 납사 상당량을 중동 지역에서 조달하고 있어 전쟁이 장기화하면 수급 불안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항공 업계도 미국·이란 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동 노선이 여객·화물 비중은 크지 않지만 유럽 등 일부 노선

은 우회 운항이 불가피해 비용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항공권 가격 인상은 여객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 항공 수요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된다. 무엇보다 유가 상승은 항공사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이날 싱가포르 항공유는 최근 배럴당 220달러까지 상승했다. 불과 2월 말 93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단기간 두 배 이상 급상승했다.

반도체와 가전, 스마트폰 업계도 중동 전쟁 장기화 전망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중동으로 가는 TV와 가전, 스마트폰

등의 물량은 고가 제품의 비중이 크지만 글로벌 경쟁사와 치열한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어 메모리반도체 가격 급등과 물류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제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원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의 수급에 비상이 걸릴 수 있는 원료는 헬륨과 브롬 같은 가스로 분석되고 있다. 반도체 웨이퍼(원판) 냉각에 필수인 헬륨의 국내 수입량중 64.7% (2025년 기준)는 이란 주변국인 카타르 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국제 유가 향방을 살피고 있다. 통상 유가가 크게 오르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주요국 판매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아시아 완성차 업체는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동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본 토요타와 현대자동차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란은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지난해 전체 중동 시장 판매량 300만대 중 38%가 이란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유와 방산업계는 수익성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정유업계는 유가 상승 시 보유한 원유 재고 가치가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영업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중동 정세 불안이 확대될 때마다 정제마진과 재고 평가이익이 동시에 늘어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방산 업계는 수익성 제고의 기회를 맞았다. 중동 전역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성능이 검증된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발주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거리 요격체 등 수주 경험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국제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80달러 내외 수준으로 유지돼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4% 포인트(p) 증가시킬 것"이라며 "국제 유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가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p 올라가고 150달러면 2.9%p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 위축, 현금흐름 경색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한 달새 20% 급등

재고부족·공급불안 등 오름폭 영향
"세계 등 정책수단 통해 부담 완화해야"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가파르게 뛰고 있다. 디젤 재고 부족과 중동 공급 불안, 생산 확대의 제약이 겹치면서 경유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8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5.32원으로 전쟁 발발 전인 지난달 27일(1692.58원)보다 약 12%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유는 리터당 1917.73원으로 1597.24원에서 약 20% 올라 휘발유보다 오름폭이 더 컸다.

로이터 등 외신은 경유 가격이 더 크게 움직이는 배경으로 구조적인 공급 부족을 꼽는다. 전 세계적으로 경유와 항공유 등 중간유분은 다른 석유제품보다 공급이 타이트한 시장으로, 유럽의 지속

적인 수입 수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영국 에너지 시장 데이터·분석 업체 보르텍사에 따르면 EU와 영국은 지난해 디젤·가스오일을 5000만t 이상, 항공유를 2500만t 이상 수입했다. 여기에 겨울철 난방과 발전 수요까지 늘면서 수급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유 공정의 구조적 특성은 공급 확대를 어렵게 만든다. 원유를 정제하면 제품은 일정 비율로 생산되는데, 원유 1배럴에서 휘발유는 약 20~30%, 경유·항공유 등 중간유분은 약 30~40%가 나온다. 특정 제품만 선택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이번 중동 전쟁은 원래 타이트하던 경유 시장을 더욱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미 금융회사 스톤엑스는 중동산 원유가 상대적으로 디젤 등 증류유 함량이 높은 등급이 많아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디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요 구조도 가격 상승을 키우

는 요인이다. 경유는 화물 운송, 선박, 건설 등 산업 전반의 핵심 연료여서 수요를 단기간에 줄이기 어렵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도 디젤 가격은 휘발유보다 더 크게 상승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집계 기준 미국 내 디젤과 휘발유 가격 격차는 2010~2021년 평균 갤런당 0.25달러에서 2022년 0.84달러로 확대됐고, 같은 해 10월에는 1.46달러까지 벌어졌다.

김병준 한국폴리텍대학교 석유화학 공정과학과장은 "국내에서는 통상 휘발유 가격이 경유보다 높지만 전쟁 등으로 공급 불안이 커지면 경유 가격이 더 크게 될 수 있다"며 "석유는 연속 공정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현재 공급에 틈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세계 등 정책 수단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기름값 아껴야"... 카드 할인혜택 관심집중

리터당 할인보다 정액·정률 혜택 유리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유비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기름값 상승이 지속되는 만큼 리터당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보다는 정액 또는 정률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나온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날 기준 1900원을 돌파했다. 전날보다 5.33원 상승했다. 1702원이었던 지난 2일과 비교하면 고작 일주일 사이 2000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폭등했다.

휘발유값이 급등하자 주유비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 상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출시된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다. 현대카드는 업계 최초로 주유 시 인근 지역 내 가장 저렴한 유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어느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주유하든 상관없이 인근 지역 내 최저 유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가는 주유 당일 반경 5km 내 국내 4대 정유사(GS칼텍스·SK에너지·S-Oil·HD현대오일뱅크) 및 알뜰주유소의 각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동일 유종 간 가격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신한카드의 '디스카운트 플랜 플러스' 카드도 주목할 만 하다. 신한카드 디스카운트 플랜 플러스 카드는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S-OIL) 등 4대 정유사에서 주유 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모든 주유소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정유사를 찾아가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신한카드 'Deep Oil' 카드도 있다. 4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 디스카운트 플랜 플러스

대 정유사 중 한 곳을 택하면 10%의 주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랜 시간 정유 혜택 카드로 주목받고 있는 카드도 있다. '삼성 ID ENERGY'는 지난 2021년 출시된 카드로, 주유 건별 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월 할인 횟수는 전월 이용 금액대별로 상이하다. 월 이용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2회, 150만원 이상일 경우 3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유사 상관없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최근처럼 기름값이 상승할 때는 리터당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보다는 비율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유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름값이 오를수록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고승훈카드고릴라대표는 "주유 혜택 카드를 고를 때는 할인·적립 한도 외에도 자주 가는 주유소 브랜드가 있는지, 전월 실적에 주유비 결제 금액도 포함되는지, 차량 관련 혜택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좋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기름값이 오르는 추세여서 리터당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보다는 정률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고르면 기름값을 조금이나마 더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김정관 "물가안정 역행하는 행위 엄정 대처" (산업통상부 장관)

정유·유통업계 가격안정 역할 당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 노력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에서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던 국내 석유 가격이 최근 며칠 사이 급등했다"며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땀 빨리, 내릴 땀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정유업계에 요청했다.

김 장관은 또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

해서는 정부가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뜰주유소 운영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알뜰주유소가 전국 평균가격 대비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유통업계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